

<표 1> '11년 3분기~'12년 3분기 콘텐츠업체(상장사) 수출 변동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3분기 (전기대비)	4분기 (전기대비)	2011년 (전년대비)	1분기 (전기대비)	2분기 (전기대비)	3분기 (전기대비)	3분기누적 (전년동기)	3분기 (전년동기)
게임	1,792.8 (2.9%)	2,790.8 (55.7%)	7,980.3 (42.2%)	2,237.9 (-19.8%)	2,034.8 (-9.1%)	2,086.6 (2.5%)	6,359.3 (22.5%)	16.4%
지식 정보	n/a	n/a	n/a	n/a	n/a	n/a	n/a	n/a
출판	15.0 (-3.8%)	85.8 (472.0%)	124.1 (173.3%)	15.7 (-81.7%)	16.3 (3.8%)	23.1 (41.7%)	55.1 (43.9%)	54.0%
방송	439.3 (-1.0%)	341.4 (-22.3%)	1,477.5 (91.9%)	442.0 (29.5%)	553.1 (25.1%)	497.1 (-10.1%)	1,492.2 (31.3%)	13.2%
광고	n/a	n/a	n/a	n/a	n/a	n/a	n/a	n/a
영화	50.7 (7.0%)	88.4 (74.4%)	200.0 (72.7%)	139.3 (57.6%)	70.7 (-49.2%)	142.3 (101.3%)	352.3 (215.7%)	180.7%
음악	175.5 (37.3%)	510.9 (191.1%)	874.3 (93.1%)	324.1 (-36.6%)	371.8 (14.7%)	550.6 (48.1%)	1,246.5 (243.0%)	213.7%
애니메이션/ 캐릭터	189.8 (-8.0%)	218.2 (15.0%)	797.2 (12.6%)	132.8 (-39.1%)	201.3 (51.6%)	199.2 (-1.0%)	533.3 (-7.9%)	5.0%
합계	2,663.1 (3.1%)	4,035.5 (51.5%)	11,453.4 (48.7%)	3,291.8 (-18.4%)	3,248.0 (-1.3%)	3,498.9 (7.7%)	10,038.7 (35.3%)	31.4%

- 1) 게임 중 'CJ 인터넷'은 '11년 3월 'CJ E&M'으로 합병됨에 따라 '11년 1분기 이후는 'CJ E&M' 게임부문 수출액을 적용. 'NHN'은 실적보고서상 '11년 1분기부터 수출액 대신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발표해 분석에서 제외
- 2) 지식정보는 산업의 특성상 내수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수출이 발생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 3) 출판 중 '대교', '능력교육', '예림당', '이퓨처'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
- 4) 방송 중 'CJ오쇼팜', 'CJ E&M', 'SBS콘텐츠허브', 'iMBC', '초록뎀', '팬엔터테인먼트', '삼화네트웍스', '나우콤'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
- 5) 영화 중 '미디어플렉스', '키이스트', 'CJ E&M', '제이콘텐트리'에서 수출 발생
- 6) 음악 중 'CJ E&M', 'SM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에서 수출 발생
- 7) 애니메이션/캐릭터 중 '코코엔터프라이즈'와 '스텝싸이언스'는 업종변경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 '오로라월드' '11년 4분기 수출액데이터 부재로 3분기 수출액 비중 적용

□ 2012년 3분기 콘텐츠 업체 수출 동향

-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12년 3분기 수출액은 약 3,49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4%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7.7% 상승
 - '10년 1분기 전분기대비 3.4% 하락 이후 상승세. '11년 1분기부터의 높은 상승 추세가 '12년 1분기 및 2분기에 다소 하락했지만 '12년 3분기 들어 비교적 큰 폭 상승
- 게임 '12년 3분기 수출액은 약 2,0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2.5% 하락. '11년 1분기 이후 일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콘

텐츠산업 수출액 전반을 견인

- '12년 3분기 전체 콘텐츠 상장사 수출액 중 비중은 59.6%로 '11년 3분기 (67.3%)에 비해 7.7%p 하락
- '12년 3분기 수출액 중 네오위즈게임즈, CJ E&M 게임부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 대형업체는 전년동기대비 7.0%, 66.8%, 849.3% 증가. 이는 스마트게임 및 대형온라인게임 대외 경쟁력 제고에 기인. 대형업체 중 액토즈소프트는 '10년 1분기부터의 전년동기대비 감소가 이어지다가 '11년 3분기 이후 증가. '12년 2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다소 큰 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6.7% 감소
 - ※ 엔씨소프트의 수출액은 '11년 2분기부터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2.4% 감소
- 중소형 업체 중에서 게임하이, 웹젠, 컴투스, 엠게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게임빌 등 6개 업체는 '11년 4분기 이후 지속적인 스마트게임 등 신작 및 흥행 게임들의 해외 수요증가에 따라 '12년 3분기 수출액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높은 성장
 - ※ 컴투스 및 게임빌은 모바일 전문게임업체이며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확대 등 스마트게임수요 인프라 확대 및 게임이용 패러다임 변화로 '11년 1분기 이후 큰 폭의 수출증가 기조를 이어감. 컴투스 및 게임빌의 '12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92.5%(248.5%)¹⁾, 133.5%(73.4%) 증가
 - ※ 제이씨엔터테인먼트 및 게임하이의 수출액은 '12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65.5%(66.8%)²⁾, 32.3%(31.7%) 증가
- 게임의 수출은 전분기대비 '10년 2분기부터의 상승세가 '11년 4분기까지 이어지다가 '12년 1분기 이후 하락을 보였으나 '12년 3분기 들어 상승세로 전환. 향후 게임 콘텐츠 소비에 부응하는 스마트기기의 지속 출시 등이 수요적 측면에서 게임시장 성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한 게임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해외 실적 지속 상승 전망
 - ※ '10년 3분기에서 '12년 2분기까지 전분기대비 각각 2.3%, 12.1%, 5.7%, 5.3%, 2.9%, 55.7% 상승, 19.8% 하락, 9.1% 하락

1) 2012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성장률

2) 2012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성장률

- 출판 '12년 3분기 수출액은 약 2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0%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41.7% 상승
 - '12년 3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0.7%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
 - ※ 대교, 능률교육, 예림당, 이퓨처의 '12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5.5%, 53.8%, 200.0%, 77.8% 증가
 - 출판은 '10년 2분기 이후 등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3분기는 전분기대비 큰 폭 상승
- 방송 '12년 3분기 수출액은 약 49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했으나 전분기대비 10.1% 하락
 - '12년 3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14.2%로 전년동기대비 2.3%p 감소
 - ※ SBS콘텐츠허브는 '12년 3분기 수출액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6.4% 증가. CJ E&M 방송부분은 전년동기대비 37.6% 증가. 초록뱀미디어와 팬엔터테인먼트는 독립제작사로서 전년동기대비 78.6%, 179.9% 증가
 - 방송은 '11년 1분기부터 '11년 4분기까지 전분기대비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가 '12년 1분기 이후 큰 폭의 상승으로 전환되었으며 '12년 3분기 들어 다소 하락
- 영화 '12년 3분기 수출액은 약 1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0.7%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101.3% 큰 폭 상승
 - '12년 3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4.1%로 전년동기대비 2.2%p 상승
 - ※ 미디어플렉스는 영화투자배급사로서 수출액의 경우 '12년 3분기 전년동기대비 350.0% 증가했으며, CJ E&M 영화부문은 전년동기대비 281.6% 증가
 - 영화는 '11년 2분기부터 전분기대비 상승세기조가 나타나다가 '12년 2분기에 다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3분기 들어 큰 폭의 상승으로 반전
- 음악 '12년 3분기 수출액은 약 55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3.7%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48.1% 상승

- '12년 3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15.7%로 전년동기 대비 9.1%p 큰 폭 상승

※ CJ E&M 음악부문, SM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등의 '12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97.9%, 103.2%, 222.2% 증가했으며, 수출액 규모 측면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이 음악 수출액 증가를 견인

- 음악은 '10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11년 1분기 이후 '12년 1분기를 제외하고, 전분기대비 상승 기조가 '12년 3분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큰 폭의 상승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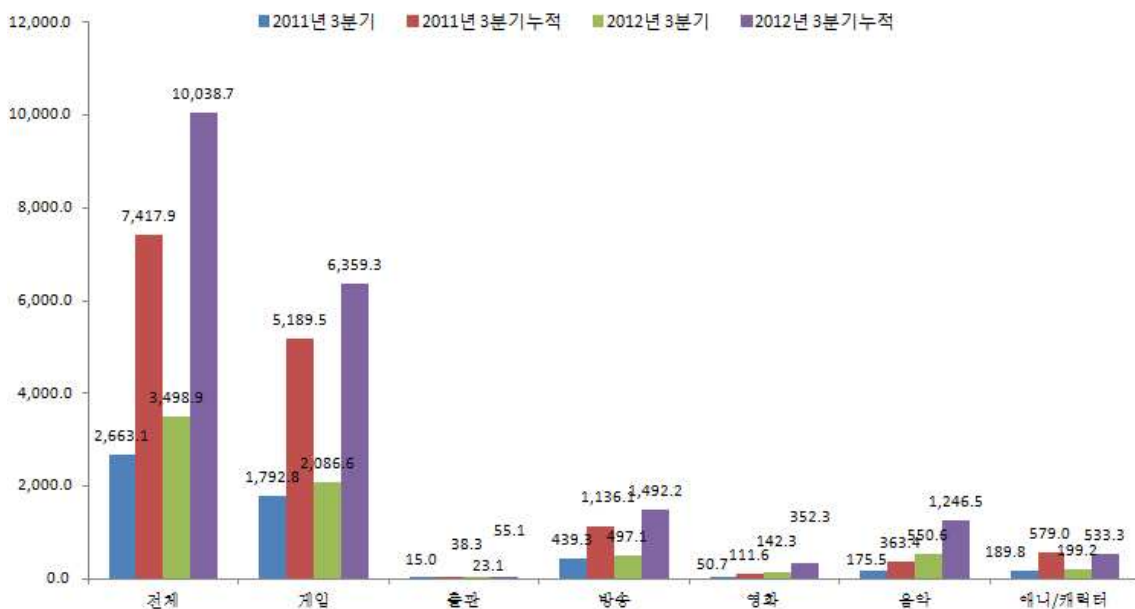
● 애니메이션/캐릭터 '12년 3분기 수출액은 약 1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했으나 전분기대비 1.0% 하락

- '12년 3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5.7%로 전년동기 대비 1.4%p 하락

- 애니메이션/캐릭터는 '10년 1분기부터 전분기대비 등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12년 3분기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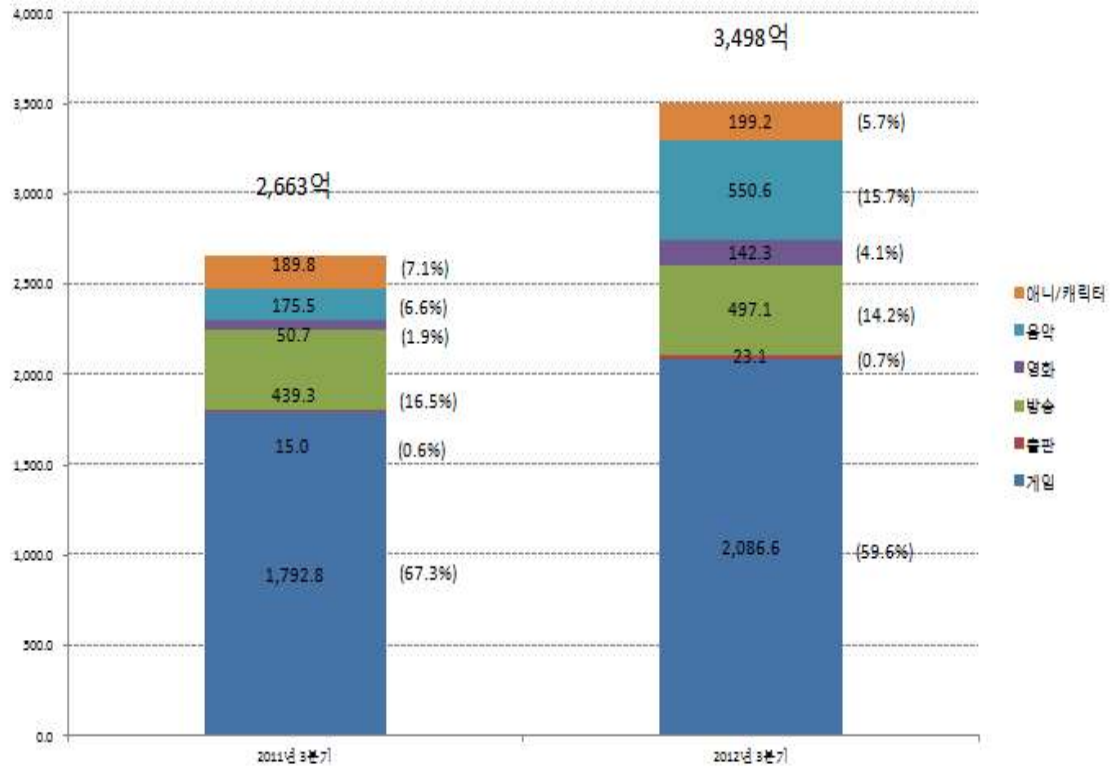
<그림 1> '11년 3분기 vs '12년 3분기 콘텐츠업체(상장사) 수출 변동

(단위 : 억원)



<그림 2> '11년 3분기 vs '12년 3분기 콘텐츠업체(상장사) 수출 누적

(단위 : 억원)



<표 2> '10년 3분기누적~'12년 3분기누적 콘텐츠업체(상장사) 수출액 변동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3분기 (전년동기)	3분기누적 (전년동기)	3분기 (전년동기)	3분기누적 (전년동기)	3분기 (전년동기)	3분기누적 (전년동기)
게임	1,397.1 (4.4%)	4,045.9 (11.1%)	1,792.8 (28.3%)	5,189.5 (28.3%)	2,086.6 (16.4%)	6,359.3 (22.5%)
지식 정보	n/a	n/a	n/a	n/a	n/a	n/a
출판	7.1 (-22.0%)	29.7 (16.4%)	15.0 (111.3%)	38.3 (29.0%)	23.1 (54.0%)	55.1 (43.9%)
방송	169.3 (189.1%)	525.0 (284.8%)	439.3 (159.5%)	1,136.1 (116.4%)	497.1 (13.2%)	1,492.2 (31.3%)
광고	n/a	n/a	n/a	n/a	n/a	n/a
영화	22.4 (-45.6%)	92.3 (3.9%)	50.7 (126.3%)	111.6 (20.9%)	142.3 (180.7%)	352.3 (215.7%)
음악	114.9 (50.6%)	419.2 (129.6%)	175.5 (52.7%)	363.4 (-13.3%)	550.6 (213.7%)	1,246.5 (243.0%)
애니메이션/ 캐릭터	213.3 (145.3%)	515.3 (33.8%)	189.8 (-11.0%)	579.0 (12.4%)	199.2 (5.0%)	533.3 (-7.9%)
합계	1,924.1 (19.5%)	5,627.4 (27.2%)	2,663.1 (38.4%)	7,417.9 (31.8%)	3,498.9 (31.4%)	10,038.7 (35.3%)

- 1) 게임 중 'CJ 인터넷'은 '11년 3월 'CJ E&M'으로 합병됨에 따라 '10년 4분기까지는 'CJ 인터넷' 및 '11년 1분기 이후는 'CJ E&M' 게임부문 수출액을 적용. 'NHN'은 실적보고서상 '11년 1분기부터 수출액 대신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발표해 분석에서 제외
- 2) 지식정보는 산업의 특성상 내수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수출이 발생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 3) 출판 중 '대교', '능률교육', '예림당', '이퓨처'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
- 4) 방송 중 'CJ오쇼핑', 'CJ E&M', 'SBS콘텐츠허브', 'iMBC', '초록뱀', '팬엔터테인먼트', '삼화네트웍스', '나우콤'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
- 5) 영화 중 '미디어플렉스', '키이스트', 'CJ E&M', '제이콘텐츠'에서 수출 발생
- 6) 음악 중 'CJ E&M', 'SM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에서 수출 발생
- 7) 애니메이션/캐릭터 중 '코코엔터테인먼트'와 '스튜디오스'는 업종변경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 '오로라월드' '11년 4분기 수출액데이터 부재로 3분기 수출액 비중 적용

□ 2012년 3분기누적 콘텐츠 업체 수출 동향

●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12년 3분기누적 수출액은 약 1조 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3% 증가

- '12년 3분기누적 콘텐츠산업 상장사 수출액 중 애니메이션/캐릭터를 제외하고 전 부문 전년동기대비 증가

※ 게임, 출판, 방송, 영화, 음악 수출액은 '12년 3분기누적 전년동기대비 22.5%, 43.9%, 31.3%, 215.7%, 243.0% 증가

- 게임의 '12년 3분기누적 수출액 '10년 3분기누적 이후 큰 폭의 증가세. 음악

의 수출액은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기록

※ 게임의 '12년 3분기누적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은 63.3%로 '11년 3분기누적(70.0%)에 비해 6.7%p 하락. 음악의 '12년 3분기누적 콘텐츠산업 관련 전체 상장사 대비 수출액 비중은 12.4%로 '11년 3분기누적 대비 7.5%p 큰 폭 증가

<그림 3> '11년 3분기누적 vs '12년 3분기누적 콘텐츠업체(상장사) 수출 누적 (단위 : 억원)

